

Beyond Division to Peace and Cooperation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2020. 9. 17(Thu.) ~ 18(Fri.) | www.dmzforum.or.kr

기획세션 2-3



Hosted by  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Organized by  경기연구원
GRI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INTEX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KOREA
PEACE
APPEAL

Sponsor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기획세션 2-3 : DMZ의 기억: 한반도 전쟁에서 세계평화로]

“북한의 비핵화와 과거의 전쟁을 극복하고 한반도 전쟁 과거를 극복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의 출발점으로써 DMZ의 의미를 다시 찾는 자리”를 언급하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좌장 고상두 교수

DMZ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대북제재는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남북 교류협력 구체적 방안과 고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재와 동시에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함. 또한 가능하면 역사로부터 시사성과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 노력이 역사적 의미와 연계성을 가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하였음

헤럴드 테너 교수

비무장지대를 경계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에 제안. 실제로는 양측의 군사력으로 방어되고 있는 곳이며 비무장지대는 전장의 산물임. 비무장지대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특정장소에서 지뢰 제거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고 구체적 목표설정이 중요함. 또한 미래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함. 예멘의 사례를 근거로 분단된 양국의 신뢰와 공통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수행된 합의에 의한 통일시도는 실패와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

이고르 토르토콜라코프 교수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주시하며 남북한 관계증진의 이유는 러시아의 태평양 안보 때문임. 러시아는 한국이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러시아의 합리적 시각을 지닌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남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데 이견이 없음. 북한이 지역내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영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함 또한 남한이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도모해줄 것임

김강일 교수

한반도 전쟁이 내전적 성격과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음. 미국, 중국, 소련의 갈등 속에서 지속되어온 전쟁이었음. 오늘 발제를 듣고 보니 20세기 갈등관계와 21세기의 갈등관계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국제 갈등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음. DMZ는 한반도 전쟁의 상징이지만 유산이기도 함. DMZ의 역할은 전쟁 상황을 완충시키는 중립지대이며 평화를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었으며 생태, 통일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함.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만든 정전협정은 비교적으로 전쟁을 억제시키고 재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남북한이 주장한 정전협정위반은 일백만건이 넘지만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무장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되었으며 비무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가 아닌 새로운 협상을 통해 다자간 공동체를 위한 '이음'으로 확산시켜야 함.

경제적, 자원적으로 잇는 지대로 만들어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만들어야 함.
DMZ가 완충과 이음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평화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최운도 소장(토론)

DMZ의 평화적 상징성에 대한 측면에서 세분 발표자가 각자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발표해 주었음.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DMZ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힘보다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DMZ를 평화적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전제로 역사적 측면에서 그동안 남북한은 특정지역에 대한 발굴을 진행한 바 있음. 그래서 DMZ내에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묻혀있음. 특히 철원지역 DMZ는 궁예가 도읍을 만들었던 지역임. 앞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이 진행된다면 문화재 복원 가능성을 가진 지역임. 그러나 오늘 발표에는 DMZ를 활용한 남북협력에 있어서 역사유적 발굴 차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음. 그래서 DMZ를 활용한 평화증진은 구조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역사발굴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함. 그래서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평화협력이 아니라 남북이 추진하는 독자적 협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 함.